

청소년의 생활양식, 주거만족도, 주거가치관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고등학생 중심으로-

김정희* ·곽경숙**

(학산 정보산업고등학교*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본 연구는 미래 주거 문화의 중심이 될 청소년 중 고등학생의 생활양식, 주거만족도, 주거가치관에 대하여 조사하고 서로의 관련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라 생활양식, 주거만족도, 주거가치관이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또한 이들 상호간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파악하여 봄으로써, 청소년기의 주생활을 이해하고 나아가 학교나 사회의 주생활 교육적인 측면에서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를 통한 문헌조사와 질문지에 의한 조사연구를 하였다.

조사대상은 전라북도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남원지역의 남·녀 인문계 고등학교 1개교의 1~2학년 3~4학급을 무작위로 표집한 학생 1200명이었다. 회수된 질문지 중 기입이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1015부를 통계분석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02년 1월 14일부터 1월 25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0.0 for Windows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단순빈도, 백분율, 평균, t-test, One-way Anova, χ^2 -검증,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양식에서는 대부분 PC와 함께 하는 생활양식이 높게 나타났다. 단지역학생,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이하, 월수입이 100만원미만, 가족수가 5명 이상이고 거주지역이 농촌인 경우는 가족중심형 생활양식에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둘째, 주거만족도에서는 대부분 건강 및 안전성에 점수가 높은 반면에 교육 및 후생시설에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이하,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 아버지가 생산직과 농업에 종사하거나 방의 수가 4개 이상, 독립주택의 경우는 사생활 보장에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주거가치관에서는 모든 변인에서 주거의 입지적 측면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있으며 다음으로 주거의 주택적 측면, 생활의식적 측면, 투자적 측면, 심리적 측면 순으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의 생활양식, 주거만족도, 주거가치관과의 상관관계는 대부분 유의적인 수준에서 정적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주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생활양식, 주거만족도, 주거가치관은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청소년은 PC와 함께 하는 생활양식에서 주거의 건강 및 안전성에 만족하고, 주거의 입지적 측면에 가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 시대로의 전환과 급격한 변화, 그리고 다양한 생활양식이 공존하고 있는 현 사회에서 청소년이 인지하고 있는 주거관도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되고 있음을 인지하여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알맞은 다양한 주거관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주거 환경은 청소년에게 중요한 영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인식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